

## 유럽 증시, 중국 경기 위축 우려, 독일 정치 불확실성에 보합 마감

### SUMMARY

- 미국 증시 노동절로 휴장, 유럽증시는 주요국 제조업 PMI 가 대부분 예상치에 부합함에도 중국 경기위축 우려에 보합권
- 고용보고서 확인 이후 미 증시 경기민감주, 중소형주로 수급 분산되며 급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유지
- 이차전지(수급빈집), 제약바이오(학회 기대감), 화장품(수출실적 견조) 등 업종간 순환매 빠르게 이어지며 소폭 상승 예상

### 유럽 증시 리뷰

2 일(월) 미국 증시가 노동절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증시는 주요국 제조업 PMI 가 대부분 예상치에 부합함에도 중국 경기위축 우려 이어지며 보합권 마감(STOXX 50 +0.3%, DAX +0.1%, FTSE 100 -0.2%, CAC 40 +0.2%)

유로존 8 월 제조업 PMI 는 45.8(예상치 45.6, 전월 45.8) 로 예상치 부합, 독일 8 월 제조업 PMI 는 42.4(예상 42.1, 전월 43.2)로 예상치 소폭 상회. 독일의 경우 22 일 발표된 예비치 42.1 보다 소폭 상향 조정됐으나 전월치 43.2 를 밀들며 제조업 경기 침체가 심화. 특히 신규 주문이 9 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. 집계측은 "2022 년 중반부터 진행 중인 비정상적으로 긴 침체로, 이번 요인은 중국이 독일 산업 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점이 주요 요인"이라고 설명

독일 극우 성향 독일을위한대안(AfD)이 트리뷴 주의회 선거에서 32.8%의 득표율로 1 당에 등극, 극우 정당이 주 의회 1 당에 오른 것은 나치 정권 이후 처음. 우파 성향의 기독민주당(CDU)이 23.6%, 급진 좌파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(BSW)이 15.8%, 솔츠 총리가 이끄는 연정 3 당은 한 자릿수의 득표율에 그침. 경기 침체 장기화 및 에너지 비용 상승 으로 인한 민생 불안, 반이민 정서 확산 등에 극우 세력에 힘이 실린 결과로 분석되며 향후 이민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정책에 변화 예상.

31 일 발표된 중국 8 월 제조업 PMI 49.1(예상 49.5, 전월 49.4)로 4 개월 연속 위축 국면, 비제조업 PMI 50.3 (예상 50.1, 전월 50.2)로 예상치 소폭 상회. 세부지표 중 생산지수 전월 50.1 → 49.8 로 위축국면 재진입, 그외 신규주문 49.3 → 48.9, 신규수출 48.5 → 48.7, 출하물가 46.3 → 42.0 로 대부분 하락.

###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미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이틀차인 금요일 반등 성공했으며 급락 조짐은 없음. 휴장 이후 시장은 1 차적으로 8 월 ISM 제조업 지수, JOLTS 구인구직 보고서 확인하며 경기침체 우려 해소 및 경기민감주, 중소형주 중심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. ISM 제조업 지수 컨센서스는 47.5(전월 46.8)로 형성, 7 월 급락했던 신규주문(전월 47.4), 고용(43.4) 등 지표의 반등 예상.

2 일(월) 국내증시는 예상치에 부합한 미국 PCE 물가 발표 이후 매크로 환경은 우호적인 가운데, 한국 수출 실적별로 차별화 장세 보이며 강보합 마감 (KOSPI +0.25%, KOSDAQ +0.2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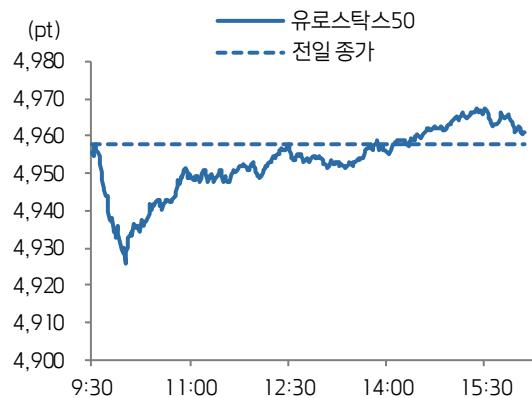
금일에는 미 증시 휴장으로 거래량 제한된 가운데 이차전지(수급빈집), 제약바이오(ESMO 학회 기대감), 화장품(수출실적 견조) 등 업종간 순환매 빠르게 이어지며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.

지난주 강세보였던 바이오, 자동차 업종은 수출 호조 선반영 인식 속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약세, 반면 2 차전지 관련주 대부분 5~10%대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. 강세 배경에는 모건스탠리에서 EU 를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량 2024 년 약 160 만 대에서 2025 년 220 만 대로 증가, LG 에너지솔루션(+6.19%) 투자등급 상향 보고서 및 솟커버 영향이 컸음. 8 월 20 일 나온 반도체 사이클 피크아웃 가능성 보고서 이후 나온 2 차전지 콜 보고서임을 감안시, 수급 빈집 및 업황 바닥을 지나는 구간임은 사실.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고 업사이드는 크다는 점에서 금주에 추세가 뒤바뀔 가능성 염두.

다만 펀더멘탈 측면에서 BYD 가격인하 이후 중국 배터리 구조조정 사이클 돌입 여부, 지난 7 월 아우디의 Q8 e트론 생산 중단 및 벨기에 브뤼셀 공장 폐쇄하는 방안 검토 보도 이후 폭스바겐의 최대 2 만명 구조조정 가능성 보도 등 전기차 수요 부진 우려 지속. 다음주 대선 TV 토론 결과에 따라 매물 출회될 가능성 존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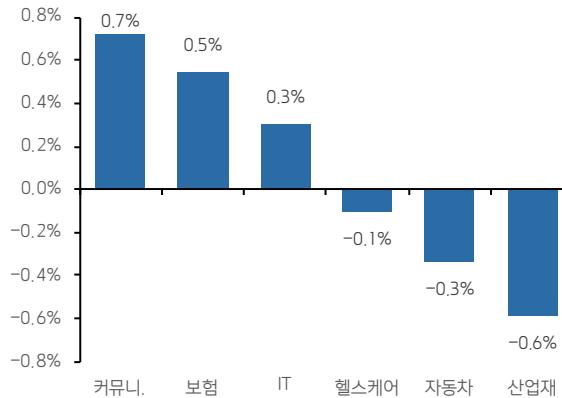
바이오, 자동차는 하락했지만 금융주 강세 지속. 9 월 추석 연휴에 FOMC, 소매판매지표 등 매크로 이벤트 앞두고 있어 불확실성 노출도 축소시키려는 움직임, 9 월 밸류업 지수 발표 앞두고 주주환원 정책 및 개선 공시 발표 예상되므로 금융주 견조한 흐름 지속될 것으로 예상.

## 유로스탁스50 일중 차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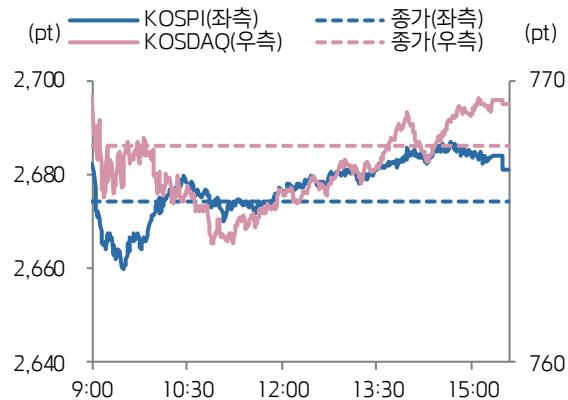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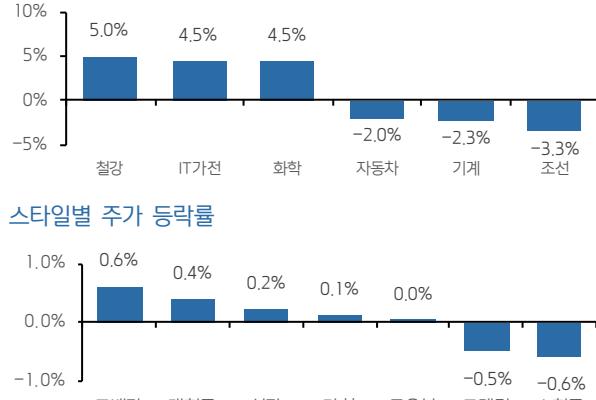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 KOSPI &amp;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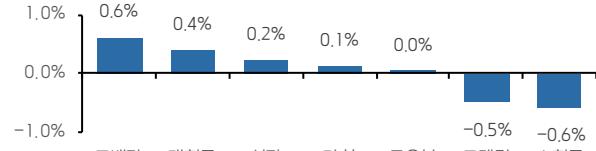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##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 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	외환시장			
지수	가격	DTD(%)	YTD(%)	지수	가격	DTD(%)	YTD(%)
코스피	2,681.00	+0.25%	+0.97%	USD/KRW	1,338.50	+0.07%	+3.92%
코스피 200	362.09	+0.15%	+1.15%	달러 지수	101.65	-0.04%	+0.32%
코스닥	769.21	+0.2%	-11.24%	EUR/USD	1.11	+0.22%	+0.3%
코스닥 150	1,303.09	+0.65%	-6.49%	USD/CNH	7.12	+0.36%	-0.14%
S&P500	5,648.40	+1.01%	+18.42%	USD/JPY	146.92	+0.51%	+4.17%
NASDAQ	17,713.63	+1.13%	+18%	채권시장		가격	DTD(bp)
다우	41,563.08	+0.55%	+10.28%	국고채 3년	2,992	+3.7bp	-15.3bp
VIX	15.55	+3.67%	+24.9%	국고채 10년	3.125	+3.7bp	-5bp
러셀 2000	2,217.63	+0.67%	+9.4%	미국 국채 2년	3.917	+0bp	-33.3bp
필라. 반도체	5,158.82	+2.58%	+23.55%	미국 국채 10년	3.903	+0bp	+2.4bp
다우 운송	16,043.85	+1.1%	+0.91%	미국 국채 30년	4.196	+0bp	+16.7bp
상해종합	2,811.04	-1.1%	-5.51%	독일 국채 10년	2,338	+3.9bp	+31.4bp
항셍 H	6,211.61	-1.89%	+7.68%	원자재 시장		가격	DTD(%)
인도 SENSEX	82,559.84	+0.24%	+14.29%	WTI	73.55	-3.11%	+3.62%
유럽, ETFs	가격	DTD(%)	YTD(%)	브렌트유	77.52	-1.62%	+0.62%
Eurostoxx50	4,973.07	+0.3%	+9.99%	금	2,527.60	-1.28%	+17.01%
MSCI 전세계 지수	833.04	-0.08%	+14.59%	은	28.73	-2.79%	+19.29%
MSCI DM 지수	3,659.44	-0.05%	+15.47%	구리	414.50	-0.06%	+6.54%
MSCI EM 지수	1,096.34	-0.33%	+7.09%	BDI	1,814.00	-0.71%	-13.37%
MSCI 한국 ETF	65.50	+0.14%	-0.05%	옥수수	401.00	+1.26%	-20.36%
디지털화폐	가격	DTD(%)	YTD(%)	밀	551.50	+0.5%	-17.56%
비트코인	59,003.52	+1%	+38.81%	대두	1,000.00	+0.76%	-19.73%
이더리움	2,555.02	+2.13%	+11.95%	커피	244.05	-1.43%	+29.61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

## 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9월 2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## 고지사항
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